

웨일 워칭 각종 투어

라우스 해안 앞바다에 있는 네무로 해협은 고래의 풍부한 먹이터로, 거의 1년 내내 고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 라우스초를 방문하여 웨일 워칭 투어를 신청하시면 범고래(4월~7월)와 향고래(7월~9월)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
고래가 활동 중이라는 신호

투어선의 크루는 수면에서 볼 수 있는 고래의 꼬리지느러미나 분기공(고래의 콧구멍)에서 나오는 물보라, 고래의 「웨일링」 등을 찾아서 수면을 관찰합니다. 이러한 신호를 발견하면 선장은 바로 배의 방향을 바꾸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래에게 다가갑니다.

고래의 콧김

고래는 물속에서 호흡할 수 없기에 정기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와서 폐 속 공기를 순환시킵니다. 고래는 종류에 따라 몇 분에서 40분 정도 물속에서 잠수 가능합니다. 분기공을 통해 몇 번 호흡한 후 꼬리지느러미를 올려 다시 물속으로 잠수합니다. 콧김으로 일으킨 물보라가 확인되면 고래의 꼬리지느러미가 수면을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

고래의 웨일링

고래가 물속으로 잠수한 후 꼬리지느러미 흔적이 남습니다. 이는 정확하게는 「해면의 파문」이라고 불리며, 꼬리지느러미가 물을 때린 후 아주 잠깐 수면에 남는 매끄럽고 유리 같은 파문입니다. 이 「웨일링」은 고래의 크기를 아는 단서가 됩니다.

투어 상세

투어는 보통 4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됩니다. 네무로 해협에서 웨일 워칭 투어를 운영하는 회사는 여러 곳 있습니다. 방문하실 때는 각 회사의 홍보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관광 안내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